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6.(월) 12:00
(지 면) 2026. 4. 7.(화) 조간

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쓴 조선의 「기행 편지」 복원하여 최초 공개

- 국가기록원, 「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」 ‘맞춤형 복원·복제 지원’
- 19세기 희귀자료로 32미터 두루마리 편지에 담긴 기행 여정과 조선의 생활상 사진

□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(원장 이용철)은 제54주년 ‘보건의 날(4.7.)’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「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」를 전면 복원하여 최초로 공개한다고 7일(화) 밝혔다.

○ 복원된 기록물의 주인공인 ‘로제타 셔우드 홀’은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‘조선여자의학강습소’ 설립, 국내 최초 한글 점자 교재 제작 등 한국 현대 의학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.

<94장을 이어 붙인 32m 대기록, 19세기 말 조선의 생활상 담겨>

□ 이번에 공개되는 기행 편지는 로제타가 1890년 의료선교를 위해 미국을 떠날 때부터 조선에 도착한 직후까지의 활동(1890.9.~1891.1.)을 고향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쓴 것이다.

○ 정갈한 영문 필기체로 낱장의 편지 94매를 이어 붙여 만든 이 편지는 가로 16.4cm, 세로 길이가 무려 31.8m에 달하는 방대한 두루마리 형태(총 2건)를 띄고 있다.

○ 편지에는 1890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증기선을 타고 호놀룰루와 일본을 거쳐, 10월 14일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40일간의 태평양 횡단 노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.

- 조선 도착 이후 1891년 1월초까지 3개월간의 기록은 더욱 특별하다. 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의 시선으로 본 당시 척박했던 조선의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, 한국 근대 의료의 시작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.
- 특히, 전통 한옥 진료소인 ‘보구녀관(普救女館)’의 모습, 가마와 전통 혼례, 고종이 청나라 사절단을 맞이하는 행렬 등 로제타가 직접 촬영한 희귀 사진 59점이 함께 부착되어 있어 당시 시대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.

<부식되고 바스러지던 사료, 18개월의 정밀 복원 거쳐 새 생명>

- 「로제타의 기행편지」는 희귀본임에도 불구하고 부착된 비닐테이프의 변색 및 접착제 경화와 당시 필기 매체인 아이언 겔 잉크(Iron Gall Ink)*의 부식으로 글자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고 종이가 바스러지는 등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.
 - * 중세에서 19C까지 사용된 대표적 필기용 잉크로 철(iron), 탄닌(tannin) 성분이 산화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글씨부분이 부식 및 갈변되며 종이가 떨어져 나감
- 또한 기록물이 지름 0.3cm의 작은 나무축에 32m 길이로 말려있어 꺾임, 접힘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.
- 국가기록원은 약 18개월에 걸쳐 오염물질 제거와 탈락된 글씨의 결실부를 복원용 한지로 보강하여 안정성과 보존성을 높였다.
 - 또한, 두루마리 형태에 대한 물리적 손상 방지와 안정성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해 원본 크기에 맞는 ‘굵게말이축*’을 사용하여 말림 횟수를 최소화시켜 편지를 안정화하고,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여 복원처리를 완료했다.
 - * 전통회화의 족자, 두루마리 등을 보관시 주름, 꺾임 방지를 위해 굵게 마는 보조 도구
 - 아울러, 이후 열람과 연구, 전시 등에 활용할 복제본 제작을 위해 고해상도 스캐너를 이용하여 디지털화를 진행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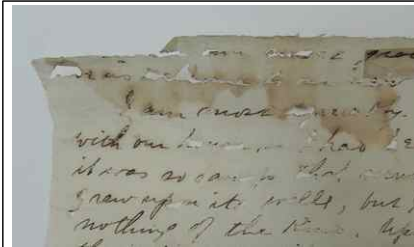
- 복원된 「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」의 원문은 소장처인 양화진기록관 누리집(<https://yanghwajinarchives.org>)과 국가기록원 누리집(www.archives.go.kr)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.
- 국가기록원은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가기록물의 보존 수명을 연장하고 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‘맞춤형 복원·복제 지원 서비스’를 운영 중이며, 현재까지 81개 민간·공공기관의 기록물 9,272매를 복원해 왔다.
- 강요섭 양화진기록관장은 “우리나라의 근대 의료와 교육의 초석을 놓은 로제타 홀 선교사의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의 도움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”라며, “선교 역사와 근대사를 연구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-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“이번 「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」가 복원돼 보건 의료 종사자를 기리기 위한 보건의 날에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우수한 복원 기술로 소중한 기록유산들이 안전하게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가기록원 복원 관리과	책임자	과 장	고연석 (031-750-2209)
		담당자	연구관	양소은 (031-750-2027)

붙임 1

「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」 복원처리 사진

□ 훼손상태



잉크성분에 의한 글자부분 탈락



찢김, 접힘 등 물리적 손상



테이프에 의한 추가 훼손

□ 복원처리 과정



① 처리 전 조사



② 테이프 제거



③ 결실부 및 글자부분 강화

□ 복원처리 전 · 후



복원 전



복원 후

□ 처리 후 보존상자



궤계말이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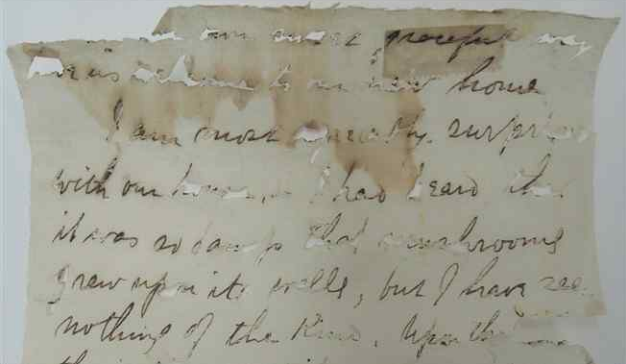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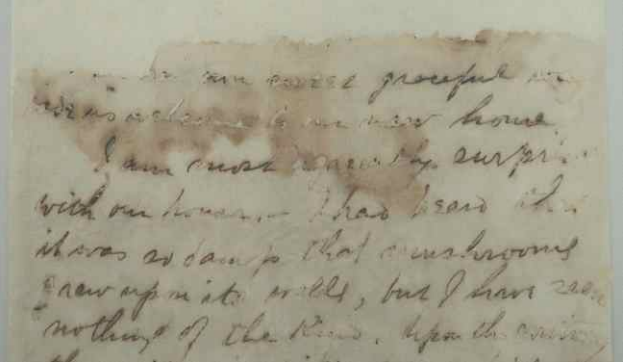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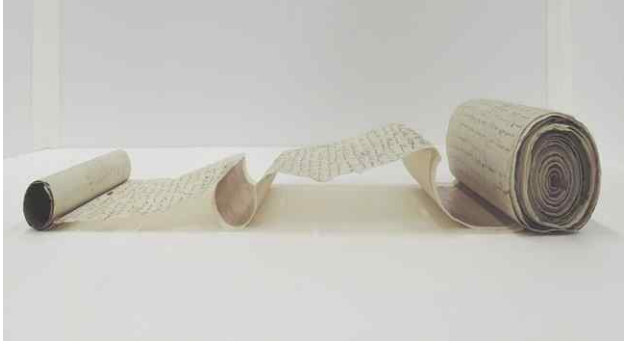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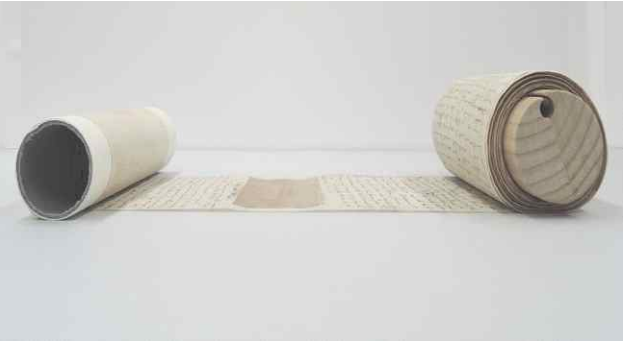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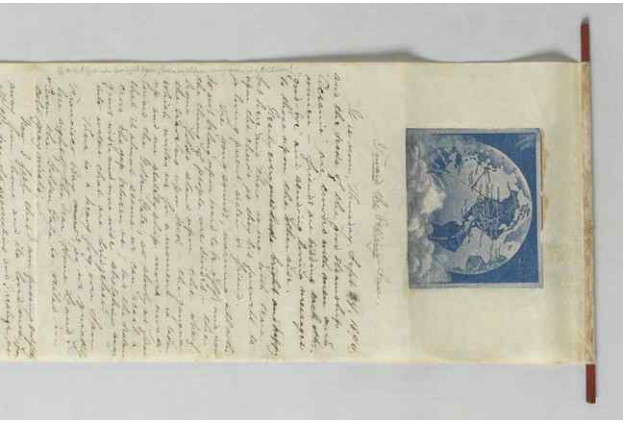


오동나무 상자와 궤계말이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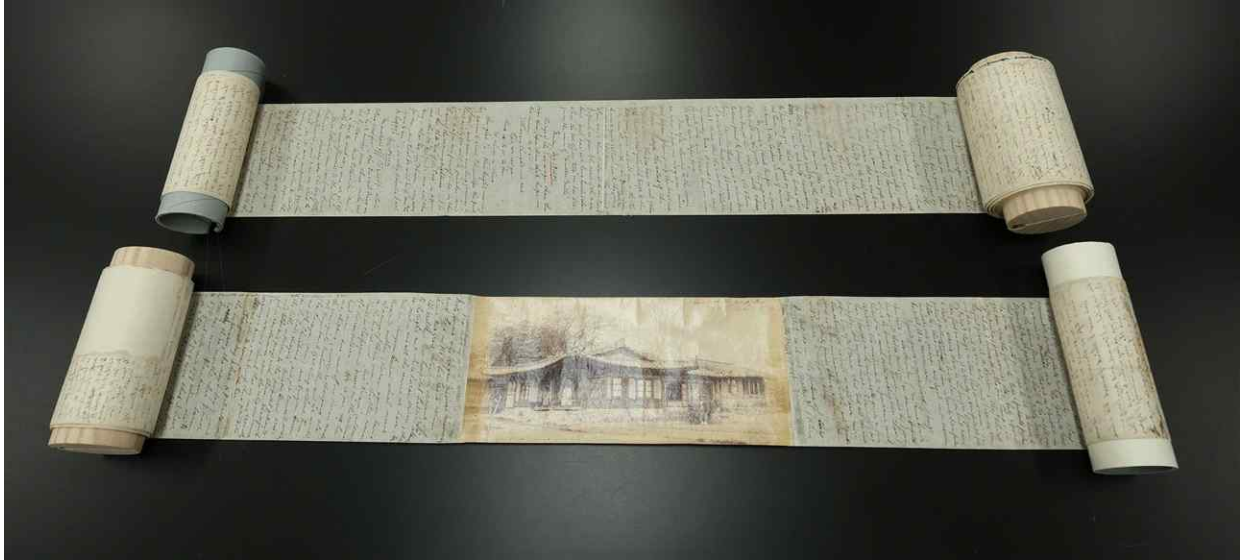
보존용 오동나무 상자

□ 복원처리 전 · 후 세부 사진

복원 전	복원 후
	
	
	
	

1. 주요 내용

〈「로제타 셔우드 홀 두루마리 기행편지」 사진〉



〈고종의 사진과 편지 내용〉



현재 왕은 약 40세이며, 1873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.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,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은둔의 나라는 미국, 일본,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. 기독교 교육을 금지하는 옛 법은 폐지된 적이 없지만, 약 20년 전 프랑스 선교사 9명이 학살*된 이후로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크게 방해받지 않고 있습니다.

* 병인박해(1866~1873년)

〈진료소였던 국내 최초 근대식 여성병원 '보구녀관' [普救女館] 사진과 편지 내용〉



제가 진료소에서 첫날 본 환자는 4명이었고, 다음 날은 9명 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거의 3개월 동안 270명의 초진 환자와 279명의 재진 환자를 포함해 총 549건을 치료했습니다.

< 신정왕후 국장 관련 청나라 조문 칙사 행렬 사진과 편지 내용 (1890.11.8)>



A list of the procession of the funeral of the King, written by Li Hsi.
 One day since we have been here, the King went outside the city walls to receive a great Chinese Ambassador. Such an occasion makes quite a "Kwang-yong" (a sight) in Seoul which many go to see. He went with quite a number of other foreign men. The soldiers with rifles and bayonets, the flags & campfires, the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and the different costumes did make indeed quite a sight for us. We saw the Chinese Ambassador, and caught a glimpse of our Korean King, Li Hsi.



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어느 날, 왕이 성벽 밖으로 나가 중국 대사를 맞이했습니다. 이런 행사는 서울에서 큰 '구경거리'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러 몰려듭니다. 우리도 다른 여러 외국인들과 함께 이 장면을 보러 갔습니다. 소총과 총검을 든 군인들, 깃발, 천막, 거친 악기들, 그리고 다양한 의상들이 어우러져 매우 인상적인 광경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는 중국 대사를 보았고, 한국 국왕 '이 히(Li Hi)*'를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.

*고종의 본명 : 이 희(熙)

<관련 문헌>

○ 고종실록 고종 27년 9월 26일(음력)

- 돈의문 밖에서 청나라 사신 속창(續昌)과 승례(崇禮)를 맞이함

○ 고종시대사 27년 9월 26일(음력)

- 돈의문 밖에 나아가 영칙(迎勅)하였다. 상칙(上勅)은 속창(續昌)과 승례(崇禮)이다.

○ 프랑스외무부문서 4 (문서번호 정치국 극동과 제181호/발신일 1890년 11월 10일

'고종의 청국 특사 접대와 특사의 조문')

- 8일 "짐이 8시 45분에 청국 사신을 맞이하러 출발할 것이다."

조대비(신정왕후)가 승하 후 청국 황제는 총리아문 대신 특별 사신 쉬창(Sui-tchang)(續昌)과 호부 좌시랑 총리(Tchong-li)(崇禮)를 파견하였고, 이들은 국왕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가마에서 내렸습니다.

2. 주요 사진

〈 로제타가 양성한 국내 최초 서양의학 여의사 박 에스더(김점동) 의과대학 졸업사진과 어릴 적 사진 〉



〈 지체높은 집안의 환자가 타고 온 가마 〉



〈 로제타 제자들의 전통혼례 사진 〉



〈로제타 셔우드 홀 사진〉

〈 약 력 〉



로제타 셔우드 홀(Rosetta Sherwood Hall)
(1865~1951)

- 1865 미국 뉴욕 리버티 출생
- 1889 펜실베이니아여자의과대학 졸업
- 1890 8.21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 고향
리버티 출발
- 1890 9.4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가는
배(오셔닉 호) 승선
- 1890 10.14 서울 도착
- 1890 10.15 보구녀관에서 사역 시작
- 1897 평양 기흥병원 설립
- 1898 평양 광혜여원 설립
- 1900 평양에 맹아 학교 설립
- 1898 에디스 마가렛 어린이 병원 건립
- 1900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
점자교과서(초학지지) 발행
- 1909 평양농아학교 설립
- 1921 동대문부인병원 원장 부임
- 1921 제물포부인병원 설립
- 1928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개소
- 1933 선교사 은퇴, 귀국
- 1951 미국에서 소천(85세)
- 이후 유언에 따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

※ 사진 및 약력 : 양화진기록관 제공